

이시영·한가인·황정음·한혜진 ...

결혼·출산 후 돌아온 여배우들

다방면 활약 비해 시청률 저조 입체적 스토리 미흡 아쉬워 연륜 맞는 장르 선택해야

결혼과 출산 후에도 이전과 다른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여배우들이 늘고 있다.

북극 시점도 빨라지고 있고, 미스터리극부터 멜로, 로코(로맨스코미디)까지 장르도 다원화된 것이 반갑지만 흥행 성적표는 엇갈리는 편이다.

현재 MBC TV '사생결단 로맨스'에서 지현우와 8년 만에 재회한 이시영(36)은 올해 1월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MBC TV 여행 예능 '선을 넘는 녀석' 등에 출연했고, 반년 만에 드라마에도 복귀했다.

복싱 선수담게 출산 전까지 장르극 '파수꾼'에서 거침없는 액션을 선보였던 그는 복귀작으로는 로코를 선택했다. 2012년 '난폭한 로맨스' 이후 6년이 흐른 가운데 과거보다 능청스러워진 코미디와 여유로워진 로맨스를 오가며 지현우와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시청률 성적은 좋지 못하다. 극이 중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시청률은 2%대(이하 닐슨 코리아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이다. 두 배우의 능익은 연기를 보는 것은 즐겁지만, 가장 중요한 스토리가 입체적이지 못하고 평범한 로맨스극에 그친 탓으로 분석된다.

최근 종영한 SBS TV '훈남정음'의 주연이었던 황정음(33) 역시 아들을 출산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아 드라마에 복귀했다. 장르는 이시영과 마찬가지로 로코였다. 로코는 황정음의 주특기로, '안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시청률은 2%대에만 머물며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황정음과 남궁민 두 배우의 나잇대를 고려하면 장르가 로코라 하더라도 세월의 흐름에 맞는 더 입체적인 스토리가 필요했지만, 내용이 그렇지 못했던 탓이다. 황정음 역시 출산 전까지 연달아 로코만 했던 탓에 접치는 이미지가 많았다.

이에 대해 황정음 소속사 관계자는 12일 "결혼과



이시영



한가인



황정음

출산 등 일신상의 변화가 있다고 해도 배우가 작품을 하는 기준은 같다. 좋은 작품과 프로덕션"이라며 "‘훈남정음’은 사랑의 가치와 인생관이 들어있어 배우가 끌렸다.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지만 나름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앞으로 작품을 선택할 때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가인(36)은 동료 배우 연정훈과 결혼 9년 만인 2016년 첫발을 내딛고 올해 초 OCN 미스터리극 '미스트리스'로 안방극장에 복귀해 화제가 됐다. 6년 만에 드라마로 돌아오면서 그 전에 주로 했던 로맨스극이 아닌 장르극을 선택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편성 시간이 심아졌던데다 초반 '19금' 장면이 편집이 치중되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지 못해 시청률은 1%대에 머물렀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미스터리 요소가 강화되면서 호평을 얻었다.

2013년 프리미어리거인 기성용과 결혼한 한혜진(37)은 지난 3월 정동 멜로 MBC TV '순 꼭 잡고, 지

는 석양을 바라보자'로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했다. 그러나 자신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남편과 이별을 준비하는 여주인공은 너무 고전적이었고,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도 세련되지 못했던 탓에 전형적인 신파로만 보였다. 물론 한혜진의 연기는 흠 잡을 데가 없었다.

이렇듯 여배우들의 결혼과 출산 후 복귀 무대가 넓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연륜에 걸맞은 입체적인 작품을 만나기는 아직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방송사 캐스팅 관계자는 "여성의 결혼 후 경력단절이 사회적 화두인데, 그 이슈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반응이 가장 민감하게 체감되는 게 사실"이라며 "결혼이나 출산은 개인적인 사생활임에도 배우의 이미지에 더해져 역차별적인 편견을 불러올 수도 있다. 아직은 남성보다 여성이 그런 면에서 캐스팅에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 2TV 아침 드라마가 돌아온다

'차달래 부인의 사랑' 내달 3일 방영

'두근두근 달콤' 이후 7년만 세 주부의 파란만장 이야기

KBS 2TV는 오는 9월 3일 아침 일일극 '차달래 부인의 사랑'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2011년 11월 4일 종영한 '두근두근 달콤' 이후 7년 만에 다시 제작되는 KBS 2TV 아침 일일극으로, 현재 방영하는 '파도야 파도야'를 끝으로 22년 만에 막을 내리는 'TV소설' 시리즈 시간대인 오전 9시에 편성된다.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학교2', '소나기', '하늘만큼 땅만큼', '무궁화 꽃이 피었

습니다'를 연출한 고영탁 PD와 '돌아와요 순애씨', '불광커피', '울랄라부부' 등의 대본을 쓴 최순식 작가가 만나 만든다.

기존 'TV소설' 시리즈가 가슴 아픈 근대사 속 인물들을 조명했다면 '차달래 부인의 사랑'은 세 주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답답한 현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중년들을 그려낼 예정이다.

드라마 측은 "확장시절 모두를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소설 '차달래 부인의 사랑'을 차용한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뽕마렐라'(아줌마+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한국식 '섹스 앤 더 시티'처럼 거침없이 솔직하고 '위기의 주부들' 같이 사정없이 발칙한 색깔 있는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청률 4%대... 존재감 위기

말장난 등 식상한 개그에 시청자 눈쌀

KBS 2TV '개그콘서트' 시청률이 4%대까지 떨어졌다.

13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 방송한 '개그콘서트' 시청률은 4.9%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4.7%였다.

부진은 하루일주일 일이 아니지만 최근 시청률이 떨어지는 추세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더군다나 최근 신인 개그맨들까지 합류했는데도 반동의 기미가 없다.

'개그콘서트'는 지난해 여름 김대희, 신봉선, 장동민 등 선배 개그맨들이 다시 합류하면서 활기를 띠었지만, 그 효과가 1년도 가지 못했다. 그 래도 7~8%대를 유지하던 시청률이 6%대, 5%대, 그리고 이날 4%대까지 급추락한 것이다.

그 원인으로서는 '개그콘서트' 자체가 최근 웃음 코드와는 떨어진 데다, 개그 무대 자체도 오프라인으로 이동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외모 비하나 말장난에 그치는 개그는 더는 시청자 호응을 얻지 못하는 데도 1회에 최소한 한번은 꼭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안팎의 비판이 있는데도 '가장 짜기 편한 개그'이기 때문인지 개선될 분위기가 없다.

개그 형태 자체도 최근에는 스탠드업 코미디 등으로 분류가 이동했다. 하지만 이런 새로운 흐름이 방송까지 반영되지 않은 데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더 낫는 형태로 먼저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상파를 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개그콘서트' 부진은 다른 일요 예능들의 선전으로 더욱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KBS 2TV '해피선데이' 중 '1박2일'은 12.6%,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9.1% 시청률을 보였다. MBC TV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은 6.1%~9.2%, SBS TV '런닝맨'은 5.7%~7.0%, '집사부일체'는 5.6%~8.0%였다. 다만 MBC TV '두니야 처음 만난 세계'는 1.9%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심야에 방송하는 SBS TV '미운 우리 새끼'는 16.0%~20.0%로 일요 예능 왕좌를 굳건히 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	4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여영차 바다야	35 닥터 365 40 나도 엄마야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사생결단 로맨스 (재)	1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00 러블리 호러러블(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10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통일전망대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15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헬로키즈 동물교실 55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토론회	55 닥터 365
2	00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자 경선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 (재)		00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3	30 와이드 코리아 플러스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30 꾸러기 식사교실	30 생활의 달인 스페셜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00 프리파라 3 30 뽀뽀보 모두야 놀자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1대 100(재) 50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00 5 MBC 뉴스 20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20 생방송 빛날	00 고향견문록 남도에서 살아가는 30 창업미디다큐 일취월장
7	00 KBS 뉴스 7 35 전라도 매력청	30 생생정보 스페셜 50 끝까지 사랑	15 비밀과 거짓말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럭
8	25 내일도 맑음	30 글로벌24 55 1대 100	55 휴먼 다크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10	00 광복절 특집 시사기획 창 55 UHD 숨터	00 러블리 호러러블	00 사생결단 로맨스	00 서린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1	0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엄마 아빠는 외계인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30 옴부 울주서밋 기획 독립영화관	35 유희열의 스케치북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띠띠뽀 띠띠뽀(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크! 보니 하니 1~5
06:00 한국기행(재)	12:10 행복함 교육세상	19:00 미니특공대 X
06:20 세계테마기행(재)	13:00 다크 오늘	19:30 EBS 뉴스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19:50 극한직업 스페셜(재)
07:30 띠띠뽀 띠띠뽀	13:40 백치미(재)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당동맹 유치원1~2	14:30 미니특공대 x	<그 여름의 끝, 그리스 섬 기행 2부>
08:30 몬카트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15 파프리카	<여름 암자기행 2부>
09:00 뽕뽕뽕 뽕뽕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1:50 광복절 특집 다크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45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2	<하야시 에이디의 끝까지 않은 기록>
09:40 메디컬 다크 - 7요일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쥬	22:45 글로벌 이빠 찾아심리
10:30 한국기행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55 백치미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45 당동맹 유치원1~2	24:45 지식채널e
<두부 새우젓찌개와 카레 주물럭>	17:15 마사와 곰	24:50 한국영화특선 <천하장사 마돈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子 36년생 새로운 시도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48년생 혼란스러운 때 유익한 조언자가 나타나는 동세이다. 60년생 무난하겠다. 72년생 두 얼굴의 속성 사이에서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84년생 파격적인 조건이 주어질 것이니 잘 활용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05, 86</p>	<p>午 42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 부작용을 줄인다. 54년생 유동적인 폭까지 감안하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66년생 내키지 않으면 굳이 행할 이유가 없다. 78년생 분수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털고 일어서야 한다. 90년생 흔들리지 않아야 성과를 본다. 행운의 숫자 : 99, 04</p>
<p>丑 37년생 적극적인 참여가 보람을 가져다준다. 49년생 관점에 따라서 판이할 것이니 폭 넓게 대응하라. 61년생 세심하게 챙길 일이다. 73년생 만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이다. 85년생 진행되어 왔던 바를 잘 추스르면 자족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6, 90</p>	<p>未 43년생 전혀 구애 받을 필요가 없으니 자신의 뜻대로 하라. 55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니라. 67년생 개선되는 위상이니라. 79년생 과정은 힘들지 몰라도 끝맺음은 알찰 것이다. 91년생 대상을 잘 선정해야 효과가 높아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39</p>
<p>寅 38년생 낙수물도 반복 되면 땀을 흘리는 법이다. 50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62년생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기로에 서게 되리라. 74년생 일반적으로 행한다면 무리가 따르게 되어 있다. 86년생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불씨가 트인다. 행운의 숫자 : 23, 22</p>	<p>申 44년생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쭈뼛 들어오는 판국이다. 56년생 지금은 이미 벌어진 국면 타개에 매진해야겠다. 68년생 유익적으로 표현했을 크게 얻으리라. 80년생 마음의 문을 열어 버린다면 만사가 길해진다. 92년생 사람들과의 만남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10, 15</p>
<p>卯 39년생 뜻이 있다면 주장해야 해결된다. 51년생 너무 오래 동안 끌어오지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63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75년생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87년생 철저히 준비하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2, 1</p>	<p>酉 45년생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생긴다. 57년생 수고로움에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69년생 발전적이고 희망찬 영역의 활로를 개척하게 되리라. 81년생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느니라. 93년생 상황 조정 되거나 훨씬 늘어나는 판시세로다. 행운의 숫자 : 63, 51</p>
<p>辰 40년생 단번에 성과가 나타나기는 힘들겠다. 52년생 탄막까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는 것이 옳다. 64년생 공동으로 행하는 것도 괜찮다. 76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88년생 현실적이고 실재적인 조처가 결실을 낳으리라. 행운의 숫자 : 38, 31</p>	<p>戌 34년생 형세를 타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46년생 복이 들어오고 있으니 두 눈 푹푹 뜨고 맞닿아라. 58년생 갈등에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70년생 참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82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행운의 숫자 : 24, 29</p>
<p>巳 41년생 관심이 생긴다. 53년생 뜻밖의 행운이 찾아 들 수도 있는 길일에 해당한다. 65년생 썩 좋은 결과라고 보고는 힘들 것이니 감안하고 대응하라. 77년생 상대의 눈빛 속에서 많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89년생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87, 69</p>	<p>亥 35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형국에 놓여있다. 47년생 재앙은 입으로부터 비롯되는 법이다. 59년생 능히 집착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71년생 옹골과 지혜를 총 동원해야 가까스로 수습할 수 있다. 83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행운의 숫자 : 98, 56</p>